

2023-08-096

BDI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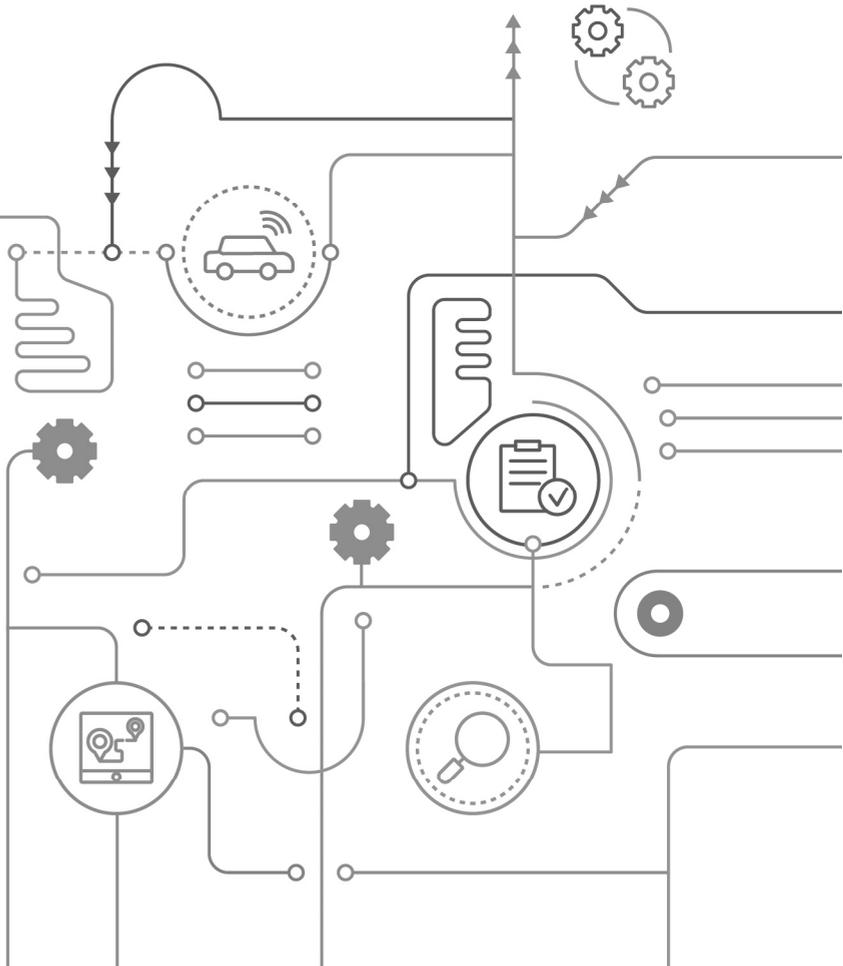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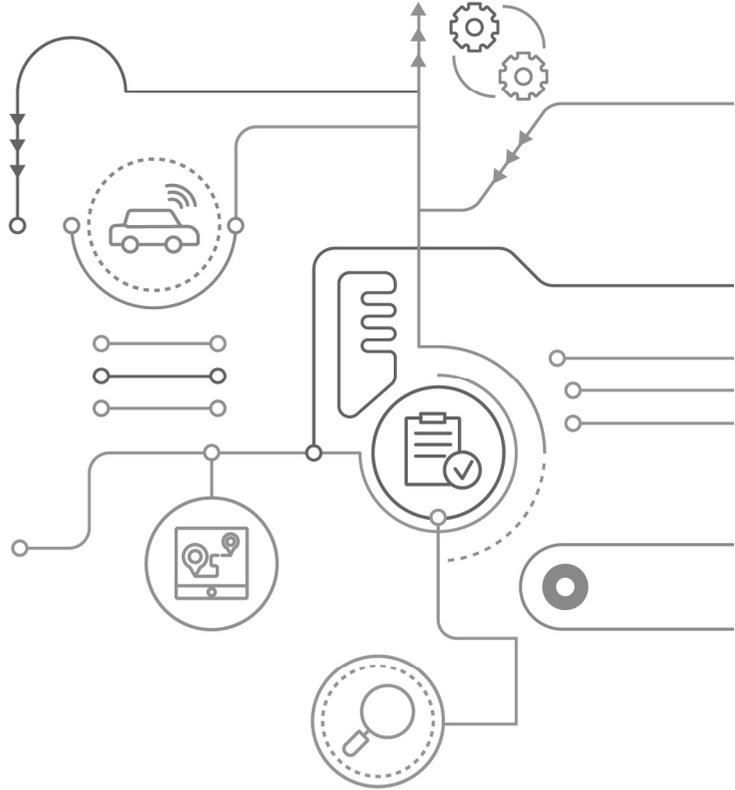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지역밀착산업 분야 지산학 인재양성 협력 방안

서옥순 · 장정재 · 강민주

BDI 부산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I. 연구개요	4
II. 부산 초·중·고등교육 인력 공급 현황	6
III. 부산지역밀착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18
IV. 지산학 인재양성 전략 및 추진과제	37
참고문헌	48

요약

- 부산지역밀착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초·중등교육-고등교육-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인재육성 체계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제시
 - 인력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미래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중·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기업, 연구소·연구원,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주체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4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추진 전략	세부과제
부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① 중고교-기업연계 진로상담·직업 체험 수업 개설 ② 대학-기업연계 인재양성 현장실습제 운영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① 부산지역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②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완화 ③ 지역일자리 리뉴얼 프로그램 운영
신성장 산업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① 대학 벤처 붐업 및 재도전 지원 ② 부산지역밀착산업 분야 대학 창업지원 확대 ③ 대학창업 네트워크 활성화·엑셀러레이터 확충
부산 미래인재 양성 협업체계 구축	① 전주기적 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구성 ②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유인체계 마련·성과제고

I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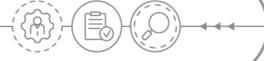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학령인구 급감,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 위기 직면
-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취·창업하고 정주하여 살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마련 필요
- 부산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학 협력 확대, 정규 교육과 취·창업 연계 강화, 청년층의 지역 정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돌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지역인재 육성계획 수립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사업 간 연계 및 역량 결집 필요
 -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밀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고등교육-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 단계 간의 연계성 강화
 - 경제·산업 관점에서 지역 내 인력 미스매치가 큰 분야, 인력수요 증가 예상 분야의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 사회·문화 관점에서 지역 애착·자부심을 느끼는 인재양성
-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 관련 주체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개별 사업의 단연도 예산 심의 및 공모 평가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 안정성 및 성과 제고

2. 연구 목적

- 본 연구를 통해 부산 초·중·고등교육 인력 공급 및 취업률 현황, 일자리 미스매치가 두드러진 지역밀착산업 분야 및 인력수요 증가 예상 분야를 살펴보고 통계적 근거 제시
-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지역인재 고용 확대를 위한 지역 고용여건 개선, 신성장산업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산지역 인재육성 협력체계 구축 방향 제시
- 인력 공급 측면에서 부산지역 초·중·고등교육 단계별 인재양성 규모, 졸업 후 취업 현황을 살펴보고,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부산지역 고용시장 여건, 산업별 인력 수요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밀착산업 분야 제시
 - 현재 활용 가능한 산업·직업별 통계를 활용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밀착산업 제시
 - 지역 경제·고용 여건변화, 주력산업 육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밀착산업 제안
- 부산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초·중등교육-고등교육-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산학 협력 인재육성 체계 구축, 지역인재 고용 확대를 위한 지역 고용여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과제 제안
 - 인력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미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1. 초·중·고 학생 수

1)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수

- 부산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국에서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음
- 2021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수는 304개, 학생 수는 153,921명으로 전국 초등학생 수의 5.76% 차지
 - 경기 763,912명(28.59%), 서울 399,435명, 경남 189,176명, 인천 155,271명
- 부산지역 중학교 수는 171개, 학생 수는 75,357명으로 전국 중학교 학생 수의 5.58%
 - 경기 378,472명(28.02%), 서울 209,749명, 경남 94,538명, 인천 78,333명
- 부산지역 고등학교 수는 142개이며, 학생 수는 73,499명으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 수의 5.65%
 - 경기 345,024명(26.54%), 서울 216,319명, 경남 86,627명, 인천 73,573명

2)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수 추이

- 부산지역 초등학교 수는 2012~2021년 동안 299개에서 304개로 5개가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는 9년 동안 172,069명에서 153,921명으로 18,148명(-10.5%)이 감소하여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율(-9.5%)보다 높은 감소율을 기록함
 -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262개가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279,655명(-9.5%)이 감소
- 중학교 수는 9년 동안 170개에서 171개로 1개가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39,579명(-34.4%)이 감소
 - 전국의 중학교는 83개 증가, 중학생 수는 498,324명(-26.9%)이 감소

- 고등학교 수는 동기간 동안 143개에서 142개로 1개가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53,485명(-42.1%)이 감소
 - 전국의 고등학교는 72개 증가, 고등학생 수는 620,122명(-32.3%)이 감소
- 2012~2021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폭이 전국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수(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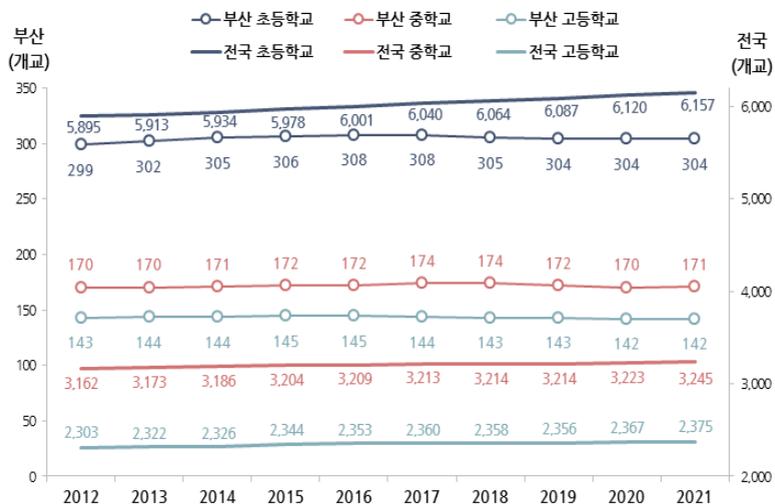
(단위 : 개,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서울	607	399,435	389	209,749	320	216,319
부산	304	153,921	171	75,357	142	73,499
대구	232	121,308	125	62,755	94	63,074
인천	258	155,271	139	78,333	126	73,573
광주	155	84,998	91	43,942	68	43,694
대전	148	77,884	88	41,158	62	40,840
울산	121	66,919	64	32,766	58	30,535
세종	51	30,726	26	13,822	21	10,818
경기	1,317	763,912	646	378,472	485	345,024
강원	348	72,373	163	37,887	116	38,374
충북	259	84,263	128	42,438	84	40,246
충남	412	118,771	184	59,514	117	56,671
전북	420	92,914	210	49,347	133	50,532
전남	430	91,229	250	46,971	144	46,781
경북	473	127,912	261	63,732	185	64,967
경남	509	189,176	265	94,538	190	86,627
제주	113	41,328	45	19,989	30	18,391
전국	6,157	2,672,340	3,245	1,350,770	2,375	1,299,965

주: 학교수에 분교장 및 폐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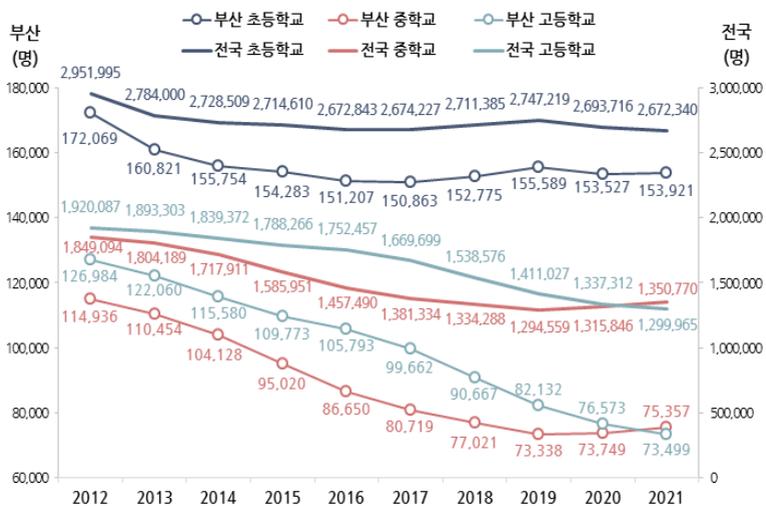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본통계조사

〈부산 및 전국 초·중·고 학교수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본통계조사

〈부산 및 전국 초·중·고 학생수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본통계조사

2.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1) 직업계고¹⁾ 전체 취업 현황

- 2021년 부산의 직업계고 수는 36개이며 졸업자 수는 5,431명으로 부산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수(73,499명)의 약 7.4% 차지
- 부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1,266명으로 취업률 52.8%이며 미취업자는 1,133명, 진학자는 2,882명으로 취업자보다 진학자가 많음
- 부산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전국 평균 55.4%보다 낮아 전국에서 취업률이 낮은 지역에 속함
 - 전북의 직업계고 취업률이 49.1%로 가장 낮고, 강원 50.3%, 경기 51.5%, 제주 52.1%, 광주 52.3%, 부산 52.8%
 - 전국에서 경북의 직업계고 취업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대전, 충북, 경남, 인천 등의 순임

〈 시도별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2021년) 〉

(단위 : 개, 명, %)

구분	학교수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미 취업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경북	54	4,537	1,369	30.2	1,863	65.1	997	267	41
대구	19	4,218	2,119	50.2	1,194	61.8	738	134	33
대전	12	2,373	1,025	43.2	739	58.9	515	74	20
충북	26	3,754	1,952	52	995	58.1	718	32	57
경남	35	3,876	1,725	44.5	1,164	57.6	857	102	28
인천	28	5,058	2,164	42.8	1,557	57.2	1,165	115	57
충남	37	3,787	1,551	41	1,187	56.6	911	81	57
전남	47	4,236	1,808	42.7	1,254	55.6	1,004	88	82
서울	74	13,133	5,320	40.5	4,129	55.5	3,313	278	93
세종	2	172	77	44.8	48	53.3	42	-	5
울산	11	2,076	1,053	50.7	518	53.2	456	30	19
부산	36	5,431	2,882	53.1	1,266	52.8	1,133	103	47
광주	13	2,482	1,194	48.1	637	52.3	581	42	28
제주	9	1,373	826	60.2	263	52.1	242	23	19

1)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는 2020년부터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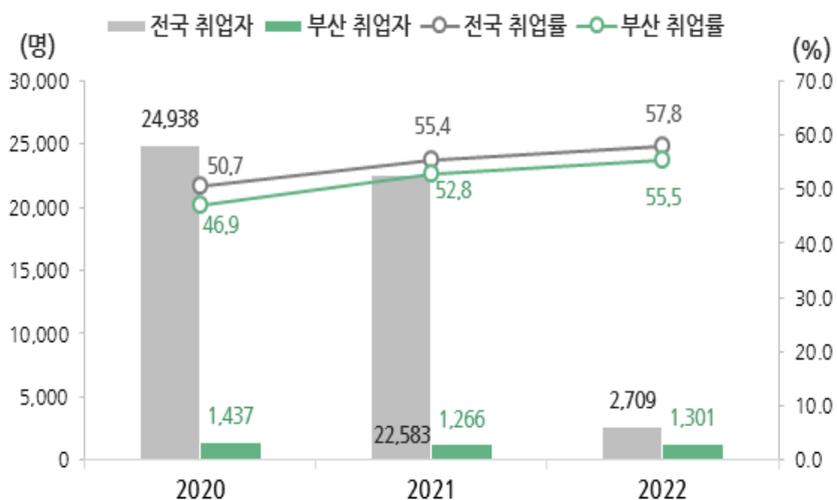
(단위 : 개, 명, %)

구분	학교수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미 취업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경기	108	16,572	7,835	47.3	4,306	51.5	4,055	177	199
강원	35	2,570	1,091	42.5	683	50.3	674	93	29
전북	35	3,346	1,538	46	780	49.1	810	170	48
전국	581	78,994	35,529	45.0	22,583	55.4	18,211	1,809	862

주: 1) 조사기준일: 2021년 4월 1일
 2) 졸업자: 2021년 1월, 2월 졸업자
 3) 취업자: 보험 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4) 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직장) 가입자
 5) 진학률(%)=(진학자÷졸업자)×100
 6) 취업률(%)={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제외 인정자))}×100
 ※ 해외취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된 해외 취업자에 한해 연계한 값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 부산 직업계고 취업률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낮은 취업률이 지속되고 있음
 - 부산 취업률은 2020년 46.9%에서 2022년 55.5%로 8.6%p 증가
 - 2022년 전국 취업률 57.8%보다 2.3%p 낮음

〈부산 및 전국 직업계고 취업률 및 취업자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2) 직업계고 유형별 취업 현황

- 직업계고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으로 구분하여 취업률을 살펴보면 부산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52.6%로 전국 평균 75.0%에 비해 상당히 낮음
 -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대전이 87.7%로 가장 높고 경기 87.7%, 충북 85.5%, 강원 84.8%, 서울 81.7%, 경북 81.2% 등의 순임
- 부산과 인천의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해사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산지역 직업계고 특성을 반영한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
 - 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집계에서 제외되며 그 외 기계공고, 자동차고 등 부산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높은 편이어서 고교 특성별 방안 마련 필요

〈시도별 직업계고 학교유형별 취업자 현황(2021년)〉

(단위 : 명, %)

구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반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서울	429	81.7	3,700	53.5	4,129	55.5	-	-
부산	257	52.6	1,009	52.8	1,266	52.8	-	-
대구	276	76.9	918	58.4	1,194	61.8	-	-
인천	144	55.8	1,413	57.3	1,557	57.2	-	-
광주	123	79.4	494	50.6	637	52.3	20	23.3
대전	186	87.7	553	53.1	739	58.9	-	-
울산	219	72.8	299	44.4	518	53.2	-	-
세종	-	-	29	54.7	48	53.3	19	51.4
경기	247	87.0	3,810	52.4	4,306	51.5	249	30.9
강원	156	84.8	483	45.3	683	50.3	44	41.5
충북	241	85.5	754	52.7	995	58.1	-	-
충남	191	77.6	844	54.7	1,187	56.6	152	49.0
전북	293	74.0	470	41.2	780	49.1	17	32.1
전남	193	66.1	1,058	54.1	1,254	55.6	3	27.3
경북	518	81.2	1,342	60.5	1,863	65.1	3	60.0
경남	156	71.6	1,005	55.9	1,164	57.6	3	50.0
제주	-	-	263	52.1	263	52.1	-	-
전국	3,629	75.0	18,444	53.4	22,583	55.4	510	35.9

주: 1) 2018년 입학생 기준(입학생 없는 학교도 포함)

2) 취업자: 보험 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3) 취업률(%)={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제외 인정자))}×100

4) 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직장) 가입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3. 전문대학·대학 학생수

1) 전문대학·대학 학교 및 학생 수

- 2021년 부산의 전문대학 수는 8개, 전문대학생 수는 38,093명이며 4년제 대학 수는 12개, 대학생 수는 180,585명
- 부산 전문대학 학생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전국 전문대학 학생 수의 6.6%
 - 경기지역 전문대학 학생 수가 181,27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3,988명, 대구 47,693명, 부산 38,093명, 경북 36,728명, 경남 26,352명 등의 순임
- 부산 4년제 대학생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전국 4년제 대학생 수의 9.3%
 - 서울 4년제 대학생 수가 504,661명, 경기 234,107명, 부산 180,585명, 충남 149,156명

〈시도별 대학·전문대학 학교 및 학생수(2021년)〉

(단위 :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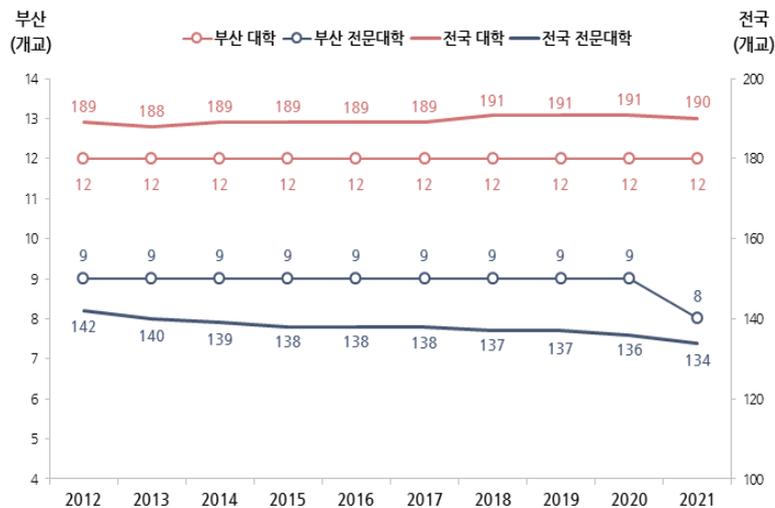
구분	대학		전문대학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서울	38	504,661	9	53,988
부산	12	180,585	8	38,093
대구	3	60,566	7	47,693
인천	3	42,805	3	21,717
광주	10	79,973	6	22,754
대전	11	105,347	4	22,712
울산	2	19,924	2	11,235
세종	2	17,504	1	4,273
경기	30	234,107	31	181,271
강원	8	92,973	8	15,013
충북	11	93,136	5	17,381
충남	13	149,156	6	20,346
전북	8	83,015	8	22,327
전남	10	43,706	9	21,617
경북	18	141,641	15	36,728
경남	9	74,202	10	26,352
제주	2	14,953	2	12,541
전국	190	1,938,254	134	576,041

주: 학교수는 기존교와 신설교를 포함(캠퍼스 및 폐교는 제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본통계조사

2) 전문대학·대학 학교 및 학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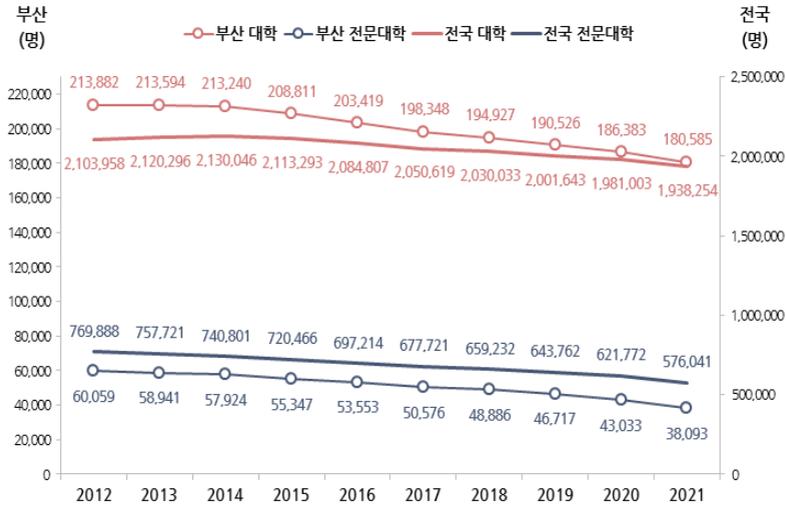
- 부산지역 4년제 대학 수는 2012~2021년 동안 12개로 동일하며 대학생 수는 9년 동안 33,297명(-15.6%)이 감소
 - 전국 4년제 대학교 수는 1개가 증가하였고, 대학생 수는 165,704명(-7.9%)이 감소
- 부산 전문대학 수는 동기간 동안 9개에서 8개로 1개가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21,966명(-36.6%)이 감소
 - 전국의 전문대학교 수는 8개 감소, 전문대학생 수는 193,847명(-25.2%)이 감소
- 부산의 4년제 대학생 수 감소폭(-15.6%)이 전국(-7.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전문대생 수 감소폭(-36.6%)도 전국(-25.2%)보다 큰 편임
- 부산과 마찬가지로 전국 4년제 대학생 및 전문대생 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부산의 감소 폭이 전국보다 더 큰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국 및 부산 전문대학·대학 학교수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본통계조사

〈전국 및 부산 대학·전문대학 학생수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본통계조사

4.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

1) 전문대학·대학·일반대학원 취업 현황

- 부산 전문대졸자 취업률은 2020년 64.9%로 전국보다 3.8%p가 낮고 전년대비 2.3%p 감소
 - 2020년 전국 전문대졸자 취업률은 68.7%로 전년에 비해 2.2%p 감소하여 부산지역 전문대졸자 취업률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서울, 대구 등의 2019~2020년 전문대졸자 취업률 하락 폭이 큰 편임
- 부산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2020년 55.8%로 전국보다 5.2%p 낮고 전년대비 4.2%p 감소
- 부산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2020년 취업률은 78.2%이며 전년대비 0.9% 감소하였고 전국보다 2.0%p가 낮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일반대학원 졸업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의 순으로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 제고가 가장 시급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시도·학제별 취업률〉

(단위 : %, %p)

구분	일반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2020	2019	증감	2020	2019	증감	2020	2019	증감
	(A)	(B)	(A-B)	(A)	(B)	(A-B)	(A)	(B)	(A-B)
서울	77.5	77.2	0.3	65.9	67.2	△1.3	63.0	66.5	△3.5
부산	78.2	79.1	△0.9	55.8	60.0	△4.2	64.9	67.2	△2.3
대구	77.6	79.5	△1.9	53.0	56.5	△3.5	68.8	72.2	△3.4
인천	79.0	82.5	△3.5	64.1	67.4	△3.3	67.4	69.6	△2.2
광주	82.8	79.6	3.2	58.9	60.6	△1.7	71.9	73.9	△2.0
대전	87.4	87.6	△0.2	62.0	63.8	△1.8	70.2	71.9	△1.7
울산	87.6	86.8	0.8	53.7	58.5	△4.8	75.1	77.8	△2.7
세종	78.8	78.7	0.1	60.6	63.5	△2.9	70.5	71.6	△1.1
경기	81.4	80.2	1.2	62.6	65.3	△2.7	67.8	70.2	△2.4
강원	81.4	82.7	△1.3	61.0	63	△2.0	70.2	70.7	△0.5
충북	82.8	81.6	1.2	60.1	61.8	△1.7	70.9	72.6	△1.7
충남	85.7	83.6	2.1	63.0	66.2	△3.2	71.3	72.0	△0.7
전북	83.0	83.0	0	58.3	60.4	△2.1	71.3	72.2	△0.9
전남	81.7	80.5	1.2	63.3	65.3	△2.0	70.9	72.3	△1.4
경북	81.6	80.2	1.4	56.8	58.4	△1.6	73.5	74.4	△0.9
경남	82.4	83.5	△1.1	56.4	58.1	△1.7	69.9	72.0	△2.1
제주	79.7	77.9	1.8	56.8	59.3	△2.5	70.2	76.0	△5.8
전국	80.2	79.9	0.3	61.0	63.3	△2.3	68.7	70.9	△2.2

주: 1) 조사기준일은 각 년도 12월 31일

2) 취업자: 해외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농림어업 종사자, 1인 창(사)업자, 개인창업 활동 종사자, 프리랜서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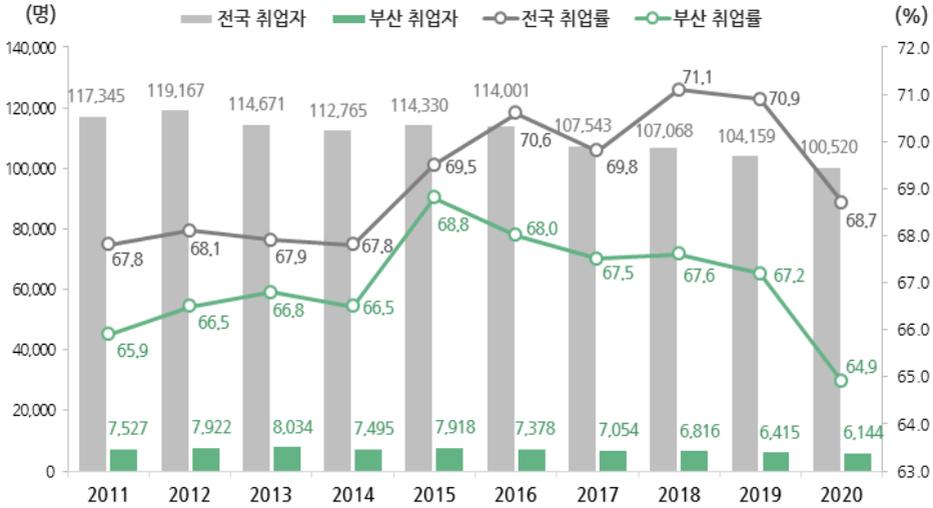
3) 취업대상자: 졸업자에서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제외 인정자,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을 제외한 값임

4) 취업률(%)={취업자÷(졸업자-(취업 불가능자+입대자+진학자+외국인 유학생+제외 인정자))}×100

자료: 교육부(2021.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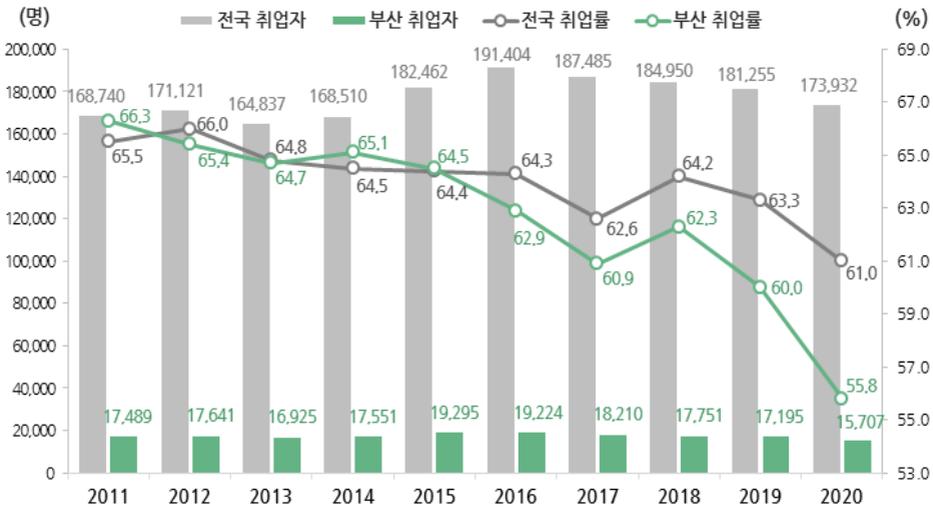
- 부산 전문대학 취업률은 2016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측됨
 - 부산 전문대졸자 취업률은 2015년 68.8%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 64.9%
- 부산지역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은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2020년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산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2011년 66.3%였으나 2020년 55.8%로 10.5%p 하락
- 전반적으로 전문대졸자보다는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고 하락 폭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전국 및 부산의 전문대학 취업률 및 취업자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전국 및 부산의 대학 취업률 및 취업자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2) 전문대학·대학·일반대학원 유지취업률 현황

- 2020년 부산 고등교육기관의 유지취업률은 전문대학이 78.2%로 가장 높고 일반대학원 78.7%, 4년제 대학 74.1% 등의 순임
- 부산 4년제 대졸자의 유지취업률이 전년대비 0.7%p 증가하긴 했으나 가장 낮아 대졸자의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시도·학제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단위 : %, %p)

구분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2020 (A)	2019 (B)	증감 (A-B)	2020 (A)	2019 (B)	증감 (A-B)	2020 (A)	2019 (B)	증감 (A-B)
서울	83.9	84.6	△0.7	72.4	70.9	1.5	84.6	85.8	△1.2
부산	78.2	78.4	△0.2	74.1	73.4	0.7	77.9	78.7	△0.8
대구	79.1	79.4	△0.3	77.0	76.5	0.5	80.0	81.7	△1.7
인천	81.5	81.5	0	75.7	74.3	1.4	85.7	86.7	△1.0
광주	77.8	78.9	△1.1	78.7	77.9	0.8	75.3	77.1	△1.8
대전	80.8	80.3	0.5	77.8	76.0	1.8	78.6	79.1	△0.5
울산	83.4	84.6	△1.2	83.3	83.2	0.1	82.6	85.1	△2.5
세종	77.6	77.0	0.6	66.9	60.4	6.5	79.9	81.9	△2.0
경기	77.3	76.8	0.5	74.5	72.9	1.6	79.6	80.5	△0.9
강원	79.4	80.2	△0.8	76.7	76.5	0.2	79.2	80.4	△1.2
충북	81.2	81.5	△0.3	77.3	78.7	△1.4	81.2	80.9	0.3
충남	78.3	78.8	△0.5	75.2	74.6	0.6	78.2	78.9	△0.7
전북	79.1	78.6	0.5	76.4	75.5	0.9	78.8	78.3	0.5
전남	77.9	78.8	△0.9	80.1	80.6	△0.5	75.2	76.9	△1.7
경북	79.7	79.6	0.1	80.0	80.1	△0.1	78.6	78.6	0
경남	80.0	80.6	△0.6	78.7	79.4	△0.7	78.9	79.7	△0.8
제주	77.9	78.2	△0.3	75.6	74.8	0.8	79.4	81.1	△1.7
전국	80.0	80.2	△0.2	76.2	75.3	0.9	80.3	81.2	△0.9

주: 1) 4차는 11개월(3, 6, 9, 11개월) 지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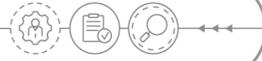
2) 조사기준일은 각 년도 12월 31일

3) 4차 유지 취업률=(4차 유지 취업자÷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자료: 교육부(2021.12.27.)



부산지역밀착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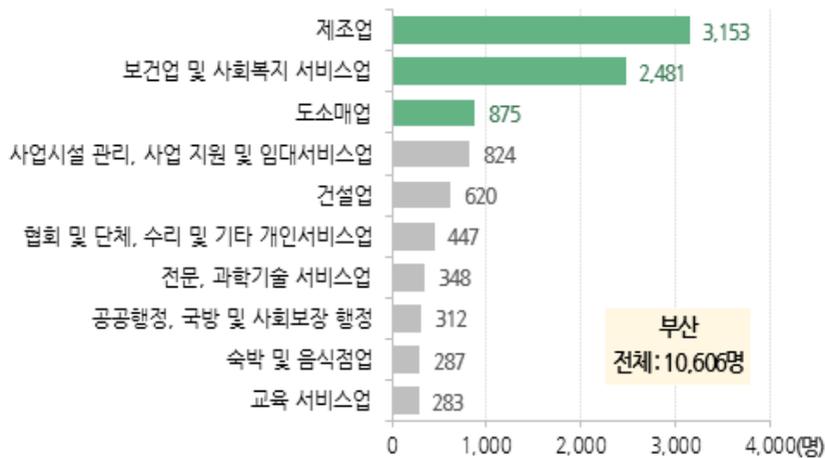


1. 부산지역 인력수요 및 일자리 미스매치

1) 산업·직종별 신규구인인원

- 부산은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신규구인인원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며 제조업은 근로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구인인원이 많은 편임
 - 2020.10월 제조업 신규구인인원은 10,606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481명이며 그 외 산업은 90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됨

〈부산 산업별 신규구인인원(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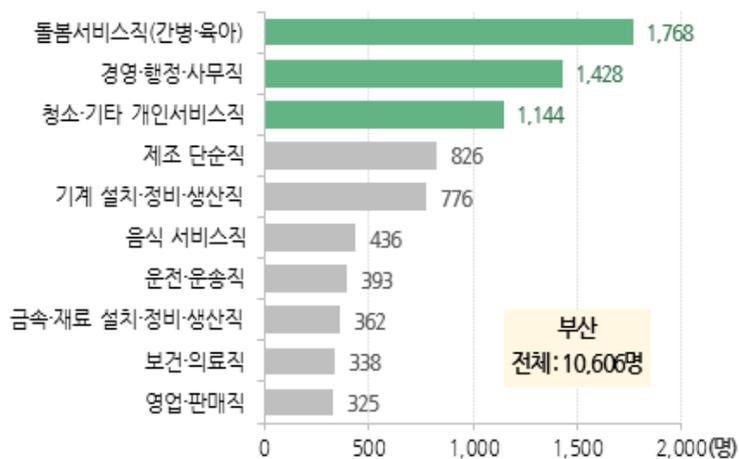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DB

- 직종별 신규구인인원을 살펴보면, 부산에서 구인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돌봄서비스 직(간병, 육아)으로 구인인원이 1,768명이며,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신규구인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776명, 제조 단순직 826명, 청소·기타 개인서비스직 1,144명, 경영·행정사무직 1,428명 등의 순으로 구인인원이 많음
- 즉, 부산지역 산업 중 종사자수 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 신규구인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해당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직종의 신규구인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 직종별 신규구인인원(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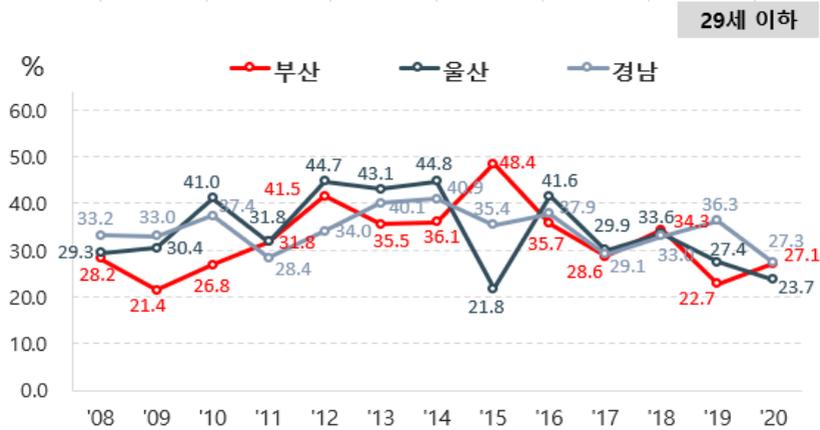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DB

2) 29세 이하 및 30대 청년층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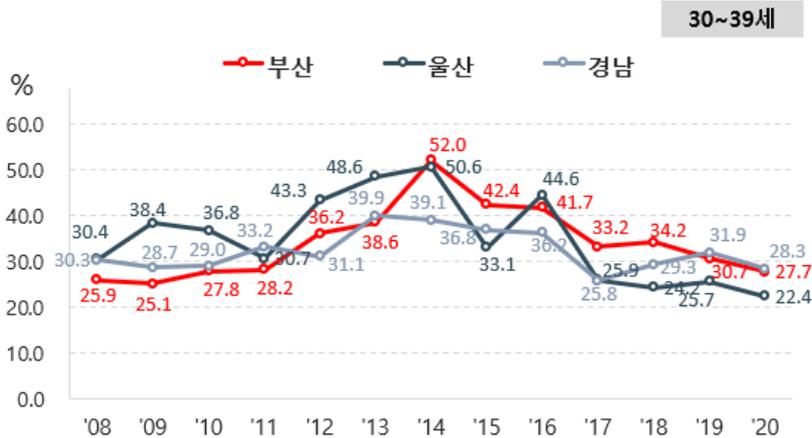
- 취업률은 신규구직건수 대비 취업건수 비율을 나타내는데, 2020년 29세 이하 취업률은 울산 23.7%, 부산 27.1%, 경남 27.3% 순으로 높음
 - 부산에서 취업을 원하는 29세 이하 청년은 100명이나 실제 취업한 인원은 27.1명인 것을 의미함
- 부산과 울산은 2014~2015년에 취업률이 44~48%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에는 27%대를 기록해 29세 이하 청년층 구직난이 5년여 전보다 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지역 30~39세 취업률은 27.7%이며, 경남은 부산보다 높은 28.3%, 울산은 22.4%를 기록함
 - 부산, 울산, 경남지역 30대 취업률은 2017년 이후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부·울·경 29세 이하 취업률(2008~2020년)〉



주: 매년 10월 기준, 취업률=(취업건수÷신규구직건수)×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DB

〈부·울·경 30대 취업률(2008~2020년)〉



주: 매년 10월 기준, 취업률=(취업건수/신규구직건수)×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DB

3) 빈일자리 수

- 현재 일자리가 비어있거나 1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나타내는 빈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제조업의 빈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도 빈일자리 수가 많은 편임

-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2018년 이후 빈일자리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등은 2021년 빈일자리 수가 증가함

〈부산 산업별 빈일자리 수〉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제조업	1,357	1,004	821	1,454
운수 및 창고업	948	927	611	7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1	517	661	594
도매 및 소매업	934	573	479	555
숙박 및 음식점업	600	537	160	3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5	22	224	343
교육 서비스업	303	173	326	2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2	363	159	180
건설업	193	142	116	1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21	397	157	139
정보통신업	116	95	38	1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9	366	134	12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	15	20	42
금융 및 보험업	105	74	53	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9	34	15	18
부동산업	55	9	109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	0	0	11
전 체	6,897	5,249	4,084	5,109

주: 빈일자리는 현재 일자리가 비어있거나 1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4) 지역별 산업기술인력²⁾ 부족인원

- 부산지역 제조업 산업기술인력은 2020년 52,245명으로 부산 전체 사업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8%

2)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함

- 부산은 전체 사업체 근로자수에서 산업기술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임
- 산업기술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43.4% 차지
- 부산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732명이며 부족률은 1.4%로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2020년)〉

(단위 : 명, %)

구분	산업기술인력				사업체 근로자수 (A)
	현원 (B)	비중 (B/A)	부족인원 (C)	부족률 (C/(B+C))	
경기	492,394	36.9	14,113	2.8	1,334,880
서울	256,172	26.1	5,178	2	979,915
대구	58,502	33.8	3,358	5.4	172,870
경남	160,625	43.7	2,593	1.6	367,927
충북	62,729	30.7	2,261	3.5	204,128
충남	122,911	43.4	1,840	1.5	283,506
경북	132,160	42.4	1,575	1.2	311,839
대전	55,006	33	1,553	2.7	166,906
인천	82,874	36.3	1,396	1.7	228,518
광주	27,955	24.8	1,076	3.7	112,586
울산	72,041	41.9	787	1.1	171,892
부산	52,245	21.8	732	1.4	239,221
전남	41,723	32.1	546	1.3	129,987
전북	35,633	27.6	507	1.4	129,188
제주	3,614	14.7	205	5.4	24,586
강원	16,353	22.4	203	1.2	73,078
전국	1,672,937	33.9	37,924	2.2	4,931,028

주: 1) 세종시는 대전시에 포함하여 계산함

2) 현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력, 외국인 인력을 포함하며, 부족인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시설 가동과 경영, 고객 주문 대응을 위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인력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전국 12대 산업의 산업기술인력 현원 비중이 45.5%로 가장 높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0%, 기타 제조업 30.7%, 영상제작·통신서비스업 30.4% 등의 순임
-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현원 비중이 41.6%, 서비스업은 24.2%

〈전국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현원〉

(단위 : 명, %)

구분	산업기술인력			사업체 근로자수(A)		
	현원(B)	비중 (B/A)	부족인 원			
12 대 산 업	제 조 부 문	기계	152,599	52.5	4,230	290,732
		디스플레이	50,007	78.3	281	63,831
		반도체	95,429	53.5	1,579	178,294
		바이오·헬스	32,557	34.1	1,076	95,536
		섬유	35,291	26.8	951	131,898
		자동차	118,199	36.3	2,412	325,409
		전자	204,141	49.2	5,465	415,021
		조선	59,621	56.6	632	105,295
		철강	64,412	52.8	1,262	121,940
		화학	123,546	36.4	4,230	339,535
	서 비 스	소프트웨어	142,914	59.5	5,883	240,231
IT 비즈니스		23,403	20.8	389	112,564	
소 계		1,102,119	45.5	28,390	2,420,287	
기 타 제 조 업	10 식료품 제조업	14,838	11.4	860	129,698	
	11 음료 제조업	3,118	9.2	192	33,756	
	12 담배 제조업	410	10.1	3	4,059	
	15 가죽, 가방·신발 제조업	4,972	14.5	172	34,379	
	16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6,399	18.0	290	35,565	
	17 펄프, 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8,343	28.8	699	63,739	
	18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8,429	21.7	425	38,824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1,998	27.6	352	79,811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 제외	100,909	62.1	1,207	162,439	
	32 가구 제조업	12,521	28.1	736	44,574	
33 기타 제품 제조업	17,708	31.6	151	56,045		
소 계		209,644	30.7	5,088	682,889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70 연구개발업	136,601	43.9	1,574	310,886	
	71 전문서비스업	36,783	9.2	412	401,845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24,201	74.0	1,377	167,937	
	73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4,965	48.6	85	10,213	
	소 계		302,550	34.0	3,448	890,880

(단위 : 명, %)

구분	산업기술인력			사업체 근로자수(A)	
	현원(B)	비중 (B/A)	부족인 원		
영상제작, 통신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92	45.7	90	7,196
서비스업	61 우편 및 통신업	16,219	28.4	121	57,089
	소 계	19,511	30.4	211	64,286
기타 서비스 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440	6.6	55	21,907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2,714	8.4	86	32,118
	74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16,604	10.2	375	162,756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925	1.9	134	204,929
	85 교육 서비스업	1,106	2.7	29	40,428
	86 보건업	13,325	3.2	108	410,548
	소 계	39,113	4.5	788	872,687
제조업		1,145,446	41.6	27,206	2,750,380
서비스업		527,491	24.2	10,718	2,180,648
전 체		1,672,937	33.9	37,924	4,931,028

주: 제조업 관련 지원 서비스업은 통신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상 제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5) 부산 산업별 부족인원

-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부산지역은 소프트웨어,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자동차, 연구개발업 등의 부족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기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대졸, 전문대졸, 고졸 순으로 부족인력이 많음
 - 자동차 산업 부족인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고졸, 전문대졸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음
- 대졸의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등의 부족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전문대졸 부족인원이 많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산업, 자동차, 기계 등임
- 고졸은 자동차, 철강, 기계, 화학 등의 부족인원이 많아 학력별로 부족인원이 많은 업종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대졸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등에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고졸은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제조업 부문 인력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부산 산업별 부족인원〉

(단위 : 명)

산업 (중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프트웨어	0	84	28	123	73	9	218	78	18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15	0	66	10	348	438	177	263	152
자동차	20	101	66	137	258	99	104	128	106
연구개발업	0	0	5	50	0	0	226	-	57
철강	9	20	49	89	97	132	49	141	29
섬유	0	0	31	52	42	44	55	21	23
화학	23	64	57	274	102	27	18	9	7
기계	50	18	159	258	146	287	672	74	4
전자	28	16	151	77	121	63	-	2	3
바이오·헬스	88	12	0	37	2	1	6	6	2
합계	257	337	974	1,567	1,517	1,580	1,672	732	578

주: 부족인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시설 가동과 경영, 고객 주문 대응을 위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인력을 의미하며, 부족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정리함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부산 고졸의 산업별 부족인원〉

(단위 : 명)

산업 (중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동차	0	47	50	87	235	91	102	128	89
철강	0	5	49	89	78	65	13	127	29
섬유	0	0	19	50	36	38	26	14	1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가구제외	0	0	243	115	0	230	-	-	7
화학	14	54	35	245	92	27	6	7	4
기계	25	11	121	174	31	211	418	70	0
바이오·헬스	73	12	0	0	2	1	2	3	0
전자	0	3	77	77	69	63	-	0	0
가죽, 가방·신발 제조업	0	0	19	61	0	55	94	-	-
합계	118	132	679	1,065	673	846	669	348	144

주: 고졸 부족인원이 많은 상위 9개 업종을 정리함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부산 전문대졸 산업별 부족인원〉

(단위 : 명)

산업 (중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프트웨어	0	14	14	53	0	5	11	42	6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0	0	0	0	116	70	26	173	42
자동차	0	26	6	35	8	3	0	0	16
기계	25	4	14	14	24	33	104	4	3
사업지원 서비스업	0	0	0	6	22	15	7	4	2
화학	0	10	0	5	10	0	2	0	1
철강	0	0	0	0	2	16	14	7	0
합계	69	72	124	156	223	227	189	231	126

주: 부족인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시설 가동과 경영, 고객 주문 대응을 위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인력을 의미하며, 부족인원이 많은 상위 7개 업종을 정리함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부산 대졸 산업별 부족인원〉

(단위 : 명)

산업 (중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프트웨어	0	70	14	70	73	4	207	36	10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15	0	31	0	198	343	131	90	100
연구개발업	0	0	5	50	0	0	226	-	25
화학	9	0	23	24	0	0	5	2	2
기계	25	11	121	174	31	211	418	70	0
자동차	20	27	4	10	6	3	0	0	0
전자	0	10	18	0	52	0	-	0	0
철강	9	10	0	0	0	32	21	7	0
기타 제품 제조업	0	0	17	67	0	0	-	-	-
합계	66	127	159	341	509	448	627	148	245

주: 부족인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시설 가동과 경영, 고객 주문 대응을 위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인력을 의미하며, 부족인원이 많은 상위 9개 업종을 정리함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6) 부산 산업기술인력 채용예상인력

- 2020년 부산은 전자(1,930명), IT 비즈니스(560명), 기계(100명), 연구개발업(90명), 철강(56명) 등 채용예상인력 수가 많음
- 전자 산업의 경우 대졸(1,278명), 석박사(525명), 전문대졸(114명), 고졸(12명) 순으로 채용예상인력이 많음
- 기계 산업 채용예상인력은 대졸(78명), 고졸(22명), 전문대졸(0명), 석박사(0명) 순임
- IT 비즈니스 산업 채용예상인력은 전문대졸(527명), 대졸(32명), 고졸 및 석박사(0명)
-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대졸(45명), 석박사, 전문대졸, 고졸 각각 0명으로 대졸 채용예상인력이 많음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산업 부족인력은 대졸(67명), 전문대졸(0명), 고졸(0명), 석박사(0명)로 대졸 채용예상인력이 많음
- 2020년 대졸 채용예상인력(1,592명)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704명), 석박사(570명), 고졸(104명) 등의 순임
- 고졸은 철강(37명), 기계(22명), 화학(22명) 산업에서의 채용예상인력이 많음
- 대졸은 기계(1,592명), 전자(1,278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67명), 소프트웨어(45명), IT 비즈니스(32명)
- 석박사는 전자(525명), 연구개발업(45명) 등의 채용예상인력이 많음

〈부산 산업별(중분류) 채용예상인력〉

(단위 : 명)

산업(중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계	259	20	309	313	535	114	16	136	100
바이오·헬스	94	13	7	12	11	15	14	30	32
섬유	0	0	35	71	48	43	24	30	25
자동차	20	48	127	225	57	54	-	-	-
전자	69	0	230	268	23	728	735	1,426	1,930
조선	15	10	4	35	33	0	-	-	-
철강	23	0	173	145	258	115	154	180	56
화학	9	148	104	196	9	101	176	20	26

(단위 : 명)

산업(중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프트웨어	0	101	35	62	0	38	391	34	45
IT 비즈니스	0	0	8	28	193	76	195	243	56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가구 제외	60	0	372	658	257	358	-	-	6
연구개발업	12	0	5	18	75	19	376	-	90
전문서비스업	0	0	0	0	343	86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175	0	307	99	289	534	53	131	67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0	0	9	0	38	20	10	59	34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2	0	4	31	17	17	102	-	-
합계	771	364	1,823	2,390	2,356	2,339	2,246	2,289	2,970

주: 각 년도별 채용예상인력은 해당 년도 1.1~12.31까지 채용할 산업기술인력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부산 고졸 산업별(중분류) 채용예상인력〉

(단위 : 명)

산업(중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계	180	218	20	9	16	65	22
바이오·헬스	5	5	11	15	14	4	0
섬유	22	68	29	27	13	9	8
자동차	96	159	57	52	-	-	-
전자	135	268	3	0	0	8	12
철강	143	138	243	100	112	180	37
화학	75	186	9	101	176	17	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가구 제외	356	485	215	93	-	-	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142	20	66	91	10	79	0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4	31	7	7	44	-	-
합계	1,215	1,770	741	542	384	363	104

주: 각 년도별 채용예상인력은 해당 년도 1.1~12.31까지 채용할 산업기술인력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부산 전문대졸 산업별(중분류) 채용예상인력〉

(단위 : 명)

산업(중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계	49	9	278	5	0	0	0
바이오·헬스	0	7	0	0	0	14	18
섬유	10	0	6	5	6	9	8
자동차	16	33	0	0	-	-	-
전자	67	0	18	10	11	71	114
철강	6	6	9	15	0	0	19
화학	0	5	0	0	0	0	0
소프트웨어	14	26	0	0	0	0	0
IT 비즈니스	8	28	71	46	171	217	527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가구 제외	16	58	5	35	-	-	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5	3	50	58	3	22	0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0	0	8	10	4	30	17
합계	199	180	500	200	223	363	704

주: 각 연도별 채용예상인력은 해당 연도 1.1.~12.31까지 채용할 산업기술인력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부산 대졸 산업별(중분류) 채용예상인력〉

(단위 : 명)

산업(중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계	80	75	208	72	0	71	78
바이오·헬스	2	0	0	0	0	12	14
섬유	2	2	6	5	6	12	9
자동차	15	4	0	3	-	-	-
전자	22	0	2	540	596	1,033	1,278
철강	24	0	6	0	42	0	0
화학	29	5	0	0	0	3	4
소프트웨어	21	35	0	19	367	34	45
IT 비즈니스	0	0	122	30	23	26	32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가구 제외	0	116	37	56	-	-	2
연구개발업	5	18	0	14	376	-	45
전문서비스업	0	0	319	43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156	73	173	385	41	30	67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9	0	29	10	4	30	17
합계	398	399	1,001	1,191	1,485	1,249	1,592

주: 각 연도별 채용예상인력은 해당 연도 1.1.~12.31까지 채용할 산업기술인력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일자리 미스매치가 높은 부산지역밀착산업

1) 산업기술인력 기준 : 기계, 철강, 자동차, 전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IT 비즈니스

- 산업기술인력 수급에서 부족인력, 채용예상인력 통계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 일자리 미스매치가 높은 업종은 기계, 철강, 자동차, 전자
-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기술인력 일자리 미스매치가 높은 산업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IT 비즈니스 등
- 대졸의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등의 부족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전문대졸 부족인원이 많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산업, 자동차, 기계 등임
- 고졸은 자동차, 철강, 기계, 화학 등의 부족인원이 많아 학력별로 부족인원이 많은 업종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대졸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등에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고졸은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제조업 부문 인력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졸 산업기술인력 채용예상인력(1,592명)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704명), 석박사(570명), 고졸(104명) 등의 순임
- 고졸은 철강(37명), 기계(22명), 화학(22명) 산업에서의 채용예상인력이 많음
- 대졸은 기계(1,592명), 전자(1,278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과학기술(67명), 소프트웨어(45명), IT 비즈니스(32명)
- 석박사는 전자(525명), 연구개발업(45명) 등의 채용예상인력이 많음

2) 산업 대분류 기준 :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 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인력 수요보다는 저숙련,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부산은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신규구인인원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0.10월 제조업 신규구인인원은 10,606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481명이며 그 외 산업은 90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부산의 빈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조업, 운수업 및 창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순으로 인력 수요가 많음

3) 미스매치 높은 직종 : 돌봄 서비스직(간병, 육아), 경영행정 사무직, 청소·기타 개인서비스직, 제조 단순직, 기계 설치·정비 생산직, 음식 서비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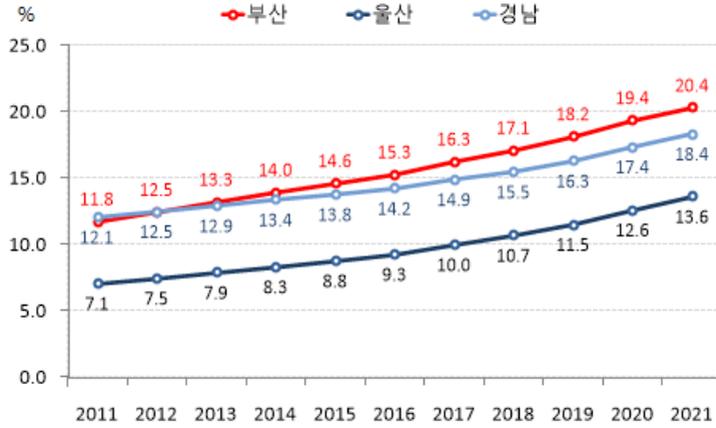
- 직종별 신규구인인원을 살펴보면, 부산에서 구인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돌봄서비스직(간병, 육아)으로 구인인원이 1,768명이며,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신규구인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776명, 제조 단순직 826명, 청소·기타 개인서비스직 1,144명, 경영·행정사무직 1,428명 등의 순으로 구인인원이 많음
- 부산지역 산업 중 종사자수 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 신규구인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해당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직종의 신규구인인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3. 부산지역 고용시장 여건과 신산업 육성 필요

1) 부산의 초고속 인구 고령화

- 부산은 2014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 인근 지역인 울산, 경남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름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건강, 의료, 주거시설, 생활편의, 여가 등 노인과 관련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개인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확대되고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부울경 65세 이상 인구 비중(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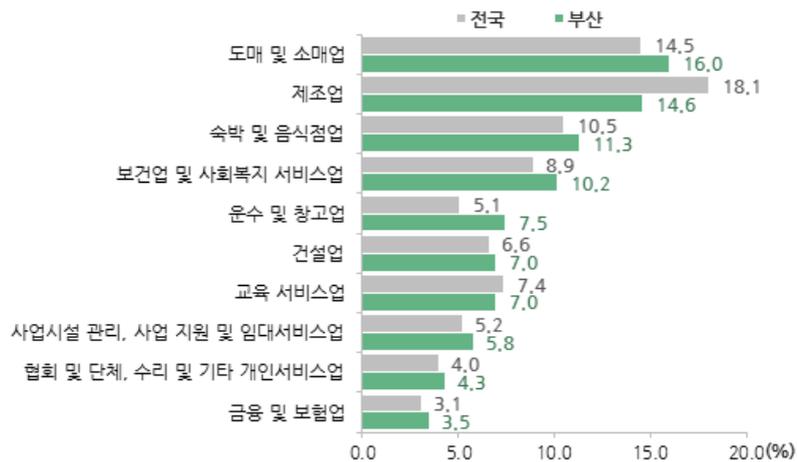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높은 비중 차지

- 부산은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가 16.0%로 가장 비중이 높고 제조업 14.6%, 숙박 및 음식점업 1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2% 등의 순임
 - 도·소매업 종사자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1.5%p 높고, 숙박·음식점업은 0.8%p, 운수·창고업은 2.4%p,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3%p 높음
 -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3.5%p 낮음

〈부산 산업별 종사자수(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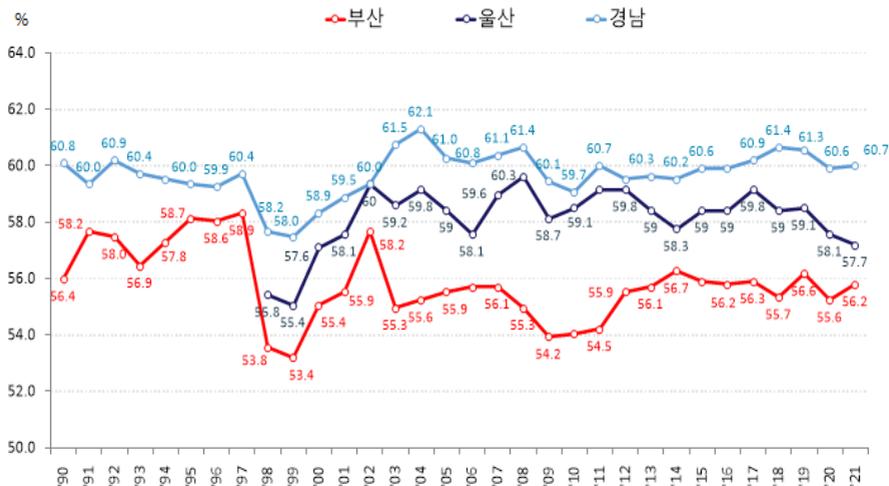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3) 부산의 낮은 고용률

- 15세 이상 고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부산이 56.2%로 가장 낮고, 경남 60.7%, 울산 57.7% 기록
 - 부·울·경 지역 중 부산지역 고용률이 가장 낮고, 1990년대 이후에는 경남지역의 고용률이 부산, 울산보다 더 높음
 - 부산과 경남지역 고용률은 2012년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각각 56%대와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울산은 같은 기간 동안 59%대를 유지하였으나 2020~2021년에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외부 경제적 충격 발생 시 부산의 고용률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는 소규모 영세 사업체 수가 많은 점,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의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들 수 있음
 - 부산은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7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고용률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울산, 경남보다 낮은 고용률 유지

〈부·울·경 15세 이상 고용률(199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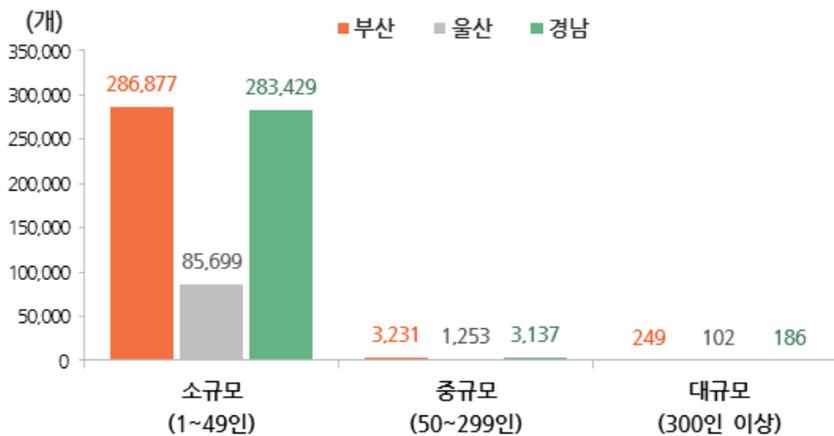


주: 1)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
 2) 울산은 1998년부터 통계 집계가 이루어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높은 소규모 사업체수 비중

- 부산의 1~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286,877개로 경남과 비슷하며, 50~299인 중규모 사업체수는 3,231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수는 249개 기록
 - 부산의 사업체수가 울산, 경남보다 많은 편이며 경남과 부산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울산지역 전체 사업체 수에서 대규모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0.12%로 경남 0.06%, 부산 0.09%보다 높음
 - 중규모 사업체수 비중은 경남 1.09%, 부산 1.11%, 울산 1.44%를 차지함
 - 반면 울산의 소규모 사업체수 비중은 98.44%로 경남 98.84%, 부산 98.80%과 비교할 때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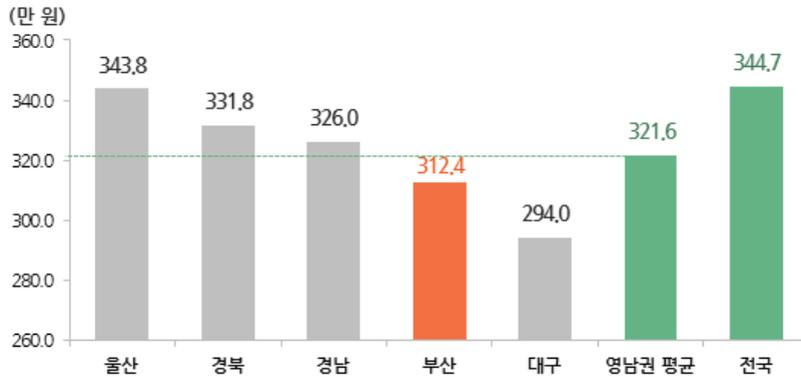
〈부울경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크고 근로 복지와 고용 안정성이 좋고,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부산지역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 선호가 인근 지역보다 다소 낮을 수 있을 것임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mismatch 완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 필요

〈지역별 상용근로자 평균월급여(2020년)〉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5) 경제·사회적 변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신산업 발굴

- 부산의 초고속 인구 고령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중심의 일자리 구조, 낮은 고용률, 소규모 영세 사업체 중심의 일자리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기술 발달, 시대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어짐
-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기술 발달,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개인 맞춤형 소비를 위한 신개념의 비즈니스 활성화
-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 원격·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³⁾, 수요 중심 경제(on-demand economy)⁴⁾ 확산 가속화
- 디지털화,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로 수요자 맞춤형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소규모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 1인 자영업이 발달하고 창업 기회가 더욱 확대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경제 및 신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활발
- 신성장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및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도모

3) 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된 경제를 일컫음

4) 앱,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자별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 신성장 기업 유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산학협력 필요성 확대

4. 고용시장 여건 및 신성장산업 기반 부산지역밀착산업

1) 바이오 헬스·디지털 헬스 산업

- 부산은 타 지역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이 두드러지면서 바이오 헬스, 해양 바이오, 고령자 의료 및 생활 보조기 개발, 의료 서비스 등의 수요 증가
- 고령자 의료기기 및 생활 보조기 생산, 의료 약품 생산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발달과 더불어 고령자 개별 맞춤형 의료 및 생활 지원 서비스업 발달을 주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성 및 수요 증가를 반영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달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함
-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 울산 등 지역으로의 확산성 및 연계성이 높아 지역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육성 가능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병원 및 대학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부산형 리딩기업 육성, 디지털 산업 등과 연계할 수 있어 산업 확산성이 높음

2) 디지털 산업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산업 발달
- 디지털 산업은 기존 제조와 서비스의 디지털 융합뿐만 아니라, 새로이 출현하는 디지털 신산업을 포함하며 디지털 사용에 의존하거나 향상되는 디지털화된 경제의 모든 산업을 포함
 - 디지털 산업 핵심영역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IT컨설팅, 정보서비스, 통신 등
- 부산지역 주력 제조업 디지털화(스마트 공장 등), 데이터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AI,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산업 육성

IV

지산학 인력양성 전략 및 추진과제



- 부산지역밀착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초·중등교육-고등교육-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인재육성 체계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제시
 - 인력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미래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중·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기업, 연구소·연구원,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주체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4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추진 전략	세부과제
부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① 중고교-기업연계 진로상담·직업 체험 수업 개설 ② 대학-기업연계 인재양성 현장실습제 운영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① 부산지역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②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완화 ③ 지역일자리 리뉴얼 프로그램 운영
신성장 산업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① 대학 벤처 붐업 및 재도전 지원 ② 부산지역밀착산업 분야 대학 창업지원 확대 ③ 대학창업 네트워크 활성화·역셀러레이더 확충
부산 미래인재 양성 협업체계 구축	① 전주기적 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구성 ②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유인체계 마련·성과제고

1. 부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체계 구축

- 초·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기업, 대학과 연계한 직업 체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연계하는 전략
- 대학교 진학 후에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교 시기부터 진로지도와 직업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 중·고등학교 시기 진로지도 및 직업 체험 수업 참여 결과가 교육시스템 전산망에 기록되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취·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
- 중고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 공공기관, 취업 관련 기관, 다양한 사업장 등과 연계한 진로지도 및 직업 체험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진로 및 직업에 관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과 연계하는 중고교, 대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재양성 산학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산업·직종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 및 지역 고용확대 도모
- 중고교-대학-기업 연계 산학협력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고교 산학협력 교육체계 구축과 대학 교육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 제시

1) 중고교-기업 연계 진로상담 및 직업 체험 수업 개설

- ① 중고교생 진로상담과 직업 체험 연계 수업 진행
 - 학교마다 직업 체험 전문 선생님을 배치하고 진로상담과 직업 체험 수업 담당
 - 진로상담 및 직업 체험 과정을 정규 교과수업으로 배정
 - 중고교 시기부터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 진로상담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상담 결과에 따라 직업 체험을 위한 학생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별로 직업 체험 수업 진행
 - 직업 특성,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요구되는 기술 및 능력,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직업군에 속한 직장인, 전문가, CEO 등과의 면담 추진
 - 직업 체험을 위해 기업·공공기관·사업장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교 때부터 정규

수업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직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직업 체험 수업을 통해 기업과 중고교 학생들과의 만남,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 소개 및 체험 기회 확대
- 중고교 학생들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취업 기회가 있는지 정보 제공

② 중고교생 대상 지역 일자리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미스매치와 역외 유출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기업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것임
- 중고교 수업 중 지역기업 및 사업장 탐방 수업을 개설하여 지역 일자리를 탐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중고교생 지역 일자리 탐방 사진, 동영상 등 공유를 통해 지역 일자리 홍보 효과 제고

2) 대학-기업 연계 인재양성 현장실습제 운영

-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사가 있고 채용 여력도 있으나,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업무능력과 기술을 가진 인재가 없어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 인재양성 현장실습제를 통해 맞춤형 인력 공급
- 일학습병행, 인턴, 현장실습 등과 같은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
-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더욱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도움
-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위한 현장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실습훈련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업무능력, 기술, 소양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한지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기업이 원하는 현장실습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현장실습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업 효과 제고

- 현장실습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 영업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
 - 참여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업 상품 및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참여자 업무 부여
 - 참여 기업의 행정처리 부담 완화, 현장실습제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필요

2.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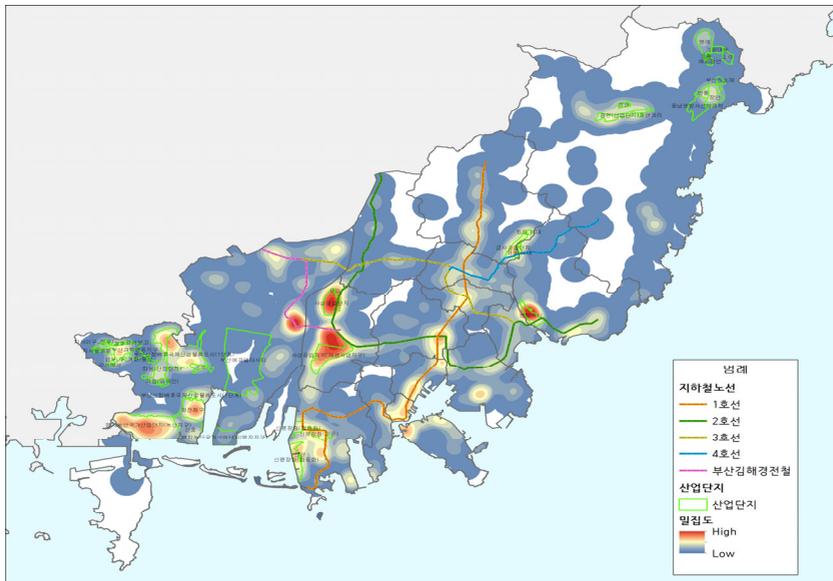
1) 부산지역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2019년도 한국기업정보DB 근거 부산 제조업 종사 사업체 2만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상공업지역,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녹산지구), 센텀시티의 사업체 밀집도가 높게 나타남
- 녹산지구, 부산신항 배후단지, 미음산업단지, 정관지역 산업단지는 제조업 사업체 밀집도가 높음에도 지하철 노선과 연결성이 부족으로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임
 - 이곳에 입주한 사업체는 불편한 대중교통 수단 때문에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으며 적기에 근로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산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해서 자가용 없는 사회초년생들의 구직 기피 지역이 되고, 이러한 원인으로 중도 퇴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한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 활용 만족도가 낮음
 - 부산시 거주하는 청년취업자(34세 이하)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금(5만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충전소 부족 등의 이유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 밀집도가 높은 산업단지는 대부분 정주여건이 좋고, 생활환경이 편리한 곳과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MZ 세대가 선호하는 문화·여가 시설 부족 이유로 청년들의 취업 기피 요인이 되고 있음
 - 주 52시간 근로제 확산 속에 구직 시 청년층은 출퇴근 시간이 짧은지, 문화·편의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 MZ 세대(1980년초~1990년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는 퇴근 후 여가를 선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지만,

부산지역 산업단지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부산지역 산업단지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하철 연계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
 - 산업 단지별,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은 사업체 종사자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구인 어려움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인근 산업단지에는 외국인 입주기업들에 의한 구인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지만 교통 접근성 불편함으로 구직자로부터 외면 받음

〈부산의 산업단지 및 제조업 밀집도〉



주: 한국기업정보DB 근거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변환
 자료: 부산연구원(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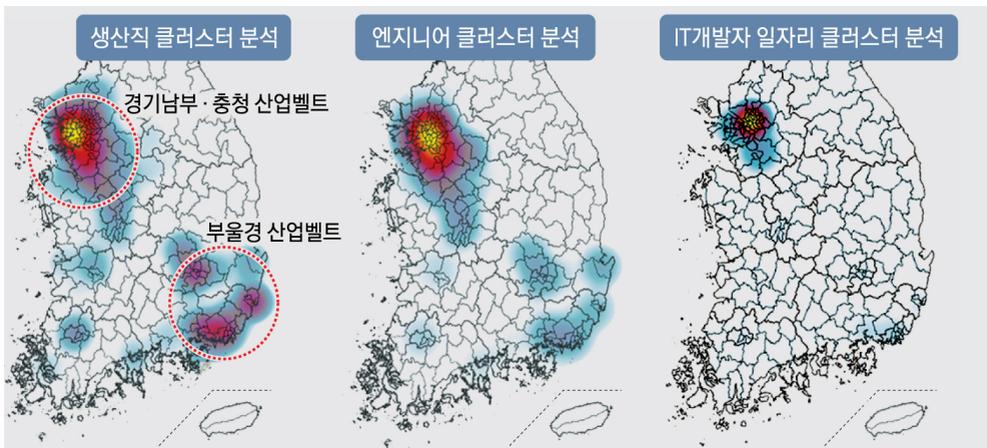
2)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정보기술(IT) 분야 일자리는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청년세대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시킴
 -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제조업 업종의 대기업이 생산 가동 중이더라도 연구개발(R&D) 센터는 수도권에 소재
- 수도권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부 주관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집중됨에 따라 IT개발

자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지방 IT 산업은 고사 상태에 놓여있음

- 성장세가 좋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기업, ICT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이들 기업이 지방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음⁵⁾
-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여건으로 만들고 신규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해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인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산업단지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온상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확대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조성

〈지역별 청년 생산직 일자리 분포 및 클러스터 분석〉



자료 : 조성철 외(2019), pp.71~73

3) 지역일자리 리뉴얼 프로그램 운영

- 대부분의 빈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 저임금 속 고위험, 고된 작업 등 이유로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며 청년층에서는 제조업 경시 풍조까지 나타남
 - 부산 산업을 대표하는 금형, 주물, 단조, 표면처리(도금) 및 용접 등 부리기업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속해 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배달 시장이 부상하면서 대거 이탈

5) 박창민(2022.8.29.)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야근 및 잔업이 축소됨에 따라 임금 하락에 따른 제조업 이탈 가속화
- 주식과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MZ세대 상당수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조업 근무에는 회의적인 경향으로 변화⁶⁾
- 부산 제조업은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분야이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마저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정부는 제조업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2023년도에 11만 명으로 확대해서 공급한다는 계획임⁷⁾
 - 2023년도의 11만 명 외국인근로자 공급계획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 공급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절박한 구인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임
- 뿌리 기업 자동화 및 첨단화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로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이 취업을 꺼리는 근로환경과 고용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일자리 확대와 경쟁력 제고가 힘든 상황에 부닥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 CEO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액 증가 및 기업 성장 사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업문화 조성,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 청년들의 사고방식의 변화, 청년 문화의 변화 등을 공유하고 근로복지 개선 방법, 근무 환경 리모델링, 제한된 재무 여건에서 단계적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 교육 제공
 - 고용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수평적·가족친화적 기업문화로 탈바꿈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도약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6) 안대규(2022.1.16.)

7) 고용노동부(2022.10.27.)

3. 신성장 산업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 증가, 개별 소비성향의 다양성 증가, 1인 가구 증가, 생산과 소비를 위한 플랫폼 경제 활성화, 수요 맞춤형 경제 활성화 등이 빠르게 진행
-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 생겨나고, 1인 자영업이 발달하면서 창업 기회가 더욱 확대
-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신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
- 창업을 통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와 근로환경 조성
- 신성장 기업 유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및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

1) 대학 벤처 붐업 및 재도전 지원

- ESG 경영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소셜벤처 창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 청년들이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창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창업동아리 내실화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소셜벤처·벤처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토지·세제·금융·지원금 혜택을 확대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 네덜란드 PortLX와 같은 벤처기업 성장 지원기업도 함께 유치해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부산지역 해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청년 벤처기업·소셜벤처 단지를 조성하여 창업하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창업 실패 토크 콘서트 개최, 청년 창업 네트워킹 데이 및 재도전 클럽 운영 등 창업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2) 부산지역밀착산업 분야 대학 창업지원 확대

- 부산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건강, 의료, 주거시설, 생활편의, 여가 등 노인과 관련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부산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및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바이오 헬스·의료 분야 창업지원 확대
- 노인과 관련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역밀착산업분야 창업교육,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확대
- 부산지역밀착산업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인재 양성 확대
- 부산지역밀착산업 분야별로 글로벌 창업자를 발굴하고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부산지역에서 창업 성공 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의 해외 창업 및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연수·보육 프로그램, 해외 마케팅 자금 등 지원

3) 대학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액셀러레이터 확충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준비된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 컨설팅 기반 및 전문성 확충이 필요
- 집단 컨설팅 제공, 아카데미 강연, 사무 집기 및 사무실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개발, 사업성 평가, 기업 성장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의 질 개선 필요
- 투자자금 확보, 마케팅, 판로 개척, 업종 특성별, 기업 성장 단계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단위의 전문성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액셀러레이터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 기반 확충 시급

-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킹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질 개선
-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이 더욱 필요한 부분들을 구분하고,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반 확충

4. 부산 미래인재 양성 협업체계 구축

1) 전주기적 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구성

-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단 구축
- 지자체 전담부서(부산시청 산학협력과), 전담기관(TP, BISTEP 등)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세부 분야별로 사업단 구성
 - 교육청, 중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기업, 연구소·연구원, 교육 훈련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부 분야별 사업단 구성
- 초·중등교육-고등교육-취·창업-정주 단계 간 연계성 강화 사업 추진
 - 부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체계 구축,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신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세부 분야별 실무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교류 체계 구축
-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주기적 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을 통해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고 각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 각 분야별 사업단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 구성, 운영 협의 및 사업 추진 노력 지속

2)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및 성과 제고

- 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을 통해 이룬 성과를 각 참여 기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참여 및 협력사업 발굴 유도

- 각 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 평가 시 가점 부여 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단별 성과 발표회, 시민참여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성과 공유 및 홍보 효과 제고
- 현장실습,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기업·직업훈련 담당자·대학·참여자 간의 원활한 정보 및 인적 교류 지원, 지역기업 맞춤형 현장교육훈련 전담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참고문헌

- 교육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2021.12.27.
- 서옥순·김종욱.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과 취업성과 분석. 부산연구원. 2019.
- 서옥순·황영순·손현일·강민주. 부산지역 청년 취업실태 분석 및 고용확대 방안. 부산연구원, 2020.
- 서옥순·황영순·장정재.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연구원, 2020.
- 신기동·김예성.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4.
- 조성철·강호제·박정은·김다윗·탁혜영.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19.
- 고용노동부.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0.27.
- 박창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메가시티’로 풀어야. 시사저널. 2022.8.29.
- 안대규. 숙련공 배달로 떠나고…청년들 제조업 꺼리고. 한국경제. 2022.1.16.
- 부산연구원. 한국기업정보DB. 2019.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검색일: 2022.09.15.).
- KESS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검색일: 2022.09.22.).
-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검색일: 2022.09.15.).

2023-08-096

BDI Insights

연구책임	서옥순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장정재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강민주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행정지원	이윤재 부산시 청년산학국장 이순정 부산시 지산학협력과장 현은희 부산시 지산학협력과 팀장 김주영 부산시 지산학협력과 주무관

발행인	신현석
발행일	2023년 08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850, FAX (051)860-8619 웹페이지 http://www.bdi.re.kr
ISBN	979-11-6886-096-4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